

예수병원 제1주차장 · 육교 동시 개통

총 600대 주차 가능
내원객 불편 해소
고객만족도 향상 기대



예수병원은 최근 제1주차장 준공예배를 갖고 제1주차장과 예수병원 육교를 동시에 개통한 가운데 내·외구인들이 참여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예수병원은 최근 제1주차장 준공예배를 갖고 제1주차장과 예수병원 육교를 동시에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예배는 정선법 원목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와 내·외구인들이 참여한 2부 테이프 커팅식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병호 목사(이산성문교회)의 기도, 임기수 목사(전주예일교회)의 설교, 박용철 건설감독관의 경과 보고에 이어 권창영 병원장이 원탁종합건설 이재선 대표이사과 박용철 건설감독관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어서 정일환 전 이사장, 광주기독교 병원 이사장 나정대 목사, 선교후원회 회장 정창환 목사의 축사, 권창영 병원장의 인사말과 성장경 이사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그동안 예수병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예수병원 제1주차장은 지하 2층 지상 5층, 600대 주차 규모의 넓고 쾌적한 주차시설로 설계돼 앞으로 내원객의 주차불편이 해소되어 더욱 편리하게 예수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날 함께 개통된 예수병원 육교

는 폭 3.6m, 길이 40m 규모로 제1주차장과 예수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예수병원 맞은 편 선교사촌, 근린상가 건물과 울해 차공하는 전주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울해 개원 120주년을 맞이한 예수병원은 제1주차장과 육교 완공에 이어

서 바로 정문 앞 철골 주차장 철거를 시작해서 올해 이 장소에 암센터를 건축할 예정이며 아울러 내·외부 시설의 확충과 개선, 마스터 플랜 추진으로 예수병원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채규남기자



청소년문화 활성화 정조준

도교육청, 총 1억4천만원
복합문화프로그램 지원

도교육청은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복합문화공간과 청소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 총 20개 기관을 선정해 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전북도교육청은 전주 군산 익산 등 6개 교육문화회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활용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11개 시지역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험 실습비, 강사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또 이와 별도로 농어촌 지역 및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하여 완주, 진안, 무주 등 농어촌지역의 교육문화회관 및 교육지원청(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역차 해소 프로그램 ▲예술동아리 발표회 등이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김민근기자

열악한 환경 피나는 연습 구슬땀, 메달로 결실 맺다

전북대사대부고 · 전주여고 컬링부
전국동계체육대회 경기사 동메달



도내 전북대사대부고와 전주여고 컬링부가 전국국가대표선수촌 컬링장에서 열린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경기 남자고등부와 여자고등부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전북대사대부고(교장 김용곤)와 전주여고(교장 송인순) 컬링부가 전국국가대표선수촌 컬링장에서 열린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경기 남자고등부와 여자고등부에서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북대사대부고는 8강에서 전남 컬링연합고등학교 팀을 8대 1로, 전주여고는 전남 목포여상을 9대 4로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 상대로는 남고부, 여고부 각각 강력한 우승팀인 경기도 의정부고 팀과, 송현고 팀을 만나 선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패해 동메달을 차지하였다.

전북대사대부고와 전주여고가 금번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값진 동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모델로 뽑히는 컬링 학생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적 지도자들의 열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도내 컬링부는 전용 훈련장이 없는 열악한 훈련 환경 속에서도 서울 태릉과 전주 화산빙상장을 오가며 피나는 연습을 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금번 동메달을 차지한 전북대사대부고 컬링부는 감독 정현철, 코치 김대석, 3학년 박현, 2학년 박승하, 1학년 소형준, 이기은, 전주여고 컬링부는 감독 이상라, 코치 김대석, 2학년 강지민, 박솔민, 1학년 신은진, 조수빈 학생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모든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 후 학습까지 소화하며 주말과 새벽, 야간 훈련을 활용해 얻은 결과라 더욱 값진 결실이라는 평가다.

전북대사대부고 김용곤 교장은 "이번 전북대사대부고와 전주여고의 동계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은 전북 컬링을 전국 최고로 만들고 싶은 연맹 임원과 지도자, 열악한 환경에

서도 최선을 다해 준 학생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으며 전주여고 송인순 교장은 "전북교육청의 동계종목 활성화 계획에 따른 관심과 지원이 좋은 결과를 보인 것 같다"면서 "전북 컬링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수, 학부모, 학교장, 감독, 코치들 모두에게 전북 컬링의 위상을 높여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민근기자

전북대 오한모 교수, 세계3대 인명사전 등재

전북대학교 오한모 교수(상대 무역학과·사진)가 세계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턴셔널' 2017~2018년판에 등재됐다.



국제경영학 분야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온 오 교수는 최근 국제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높은 연구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오 교수는 지난해 영국 에메랄드(Emerald)사가 발간하는 SSCI급 저널에 '간접 학습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한국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Export market expansion through indirect learning:evidence from Korean exporters)'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최우수논문에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오 교수는 현재 AIB(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와 GAMMA(Global Alliance of Marketing and Management)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에서 활발한 활동도 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